

항공운송업, 고무·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

- 현장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(H51), 고무·플라스틱 제조업(C22)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.

※ 고용유지지원금 제도: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,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지원

고용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*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.

*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'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'하는 경우 지원 가능

이번에 항공운송업을 매출액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 것은 27일 항공·관광업계 간담회 시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. 당시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*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.

* 항공유 가격 변동: 89.03\$('26.2월) → 194.49\$(3월 평균) → 216.44\$(4월2주 평균)

나프타 수급난 속, 주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고무·플라스틱 제조업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.

* 종량제 봉투 원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1t당 원료 가격(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)

↳ 130~140만원('26.2월) → 155~160만원(3월) → 220~240만원(4월)

그리고, 지원요건이 완화된 ①석유 정제품 제조업, ②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, ③항공운송업, ④고무·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주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.

김영훈 장관은 “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,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순홍 (044-202-7227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현 (044-202-7229)

